

‘대회 첫 2관왕’ 안산 고향 광주, 2025 세계양궁대회 탄력

여대부 최강 광주여대·女일반부 강자 광주시청
수 십년 걸쳐 양궁 스타 지속 배출에 유지전 탄력

도쿄올림픽 첫 금메달, 대회 첫 2관왕에 이어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에 도전하는 안산(20·광주여대)의 올림픽 선전과 궤거에 힘 입어 광주시의 세계대회 유지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궁 메카’ 광주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지전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3월, 차별화된 인프라와 양궁 명문도시라는 점, 국제양궁장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대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초·중·고·대학·일반부로 체계화된 인적 인프라는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여대부 최강 광주여대와 여자 일반부 강자 광주시청에 이어 최근엔 남구정이 남자양궁단을 창

단했다. 활동중인 양궁단만 20개팀에 이른다.

광주는 17세 나이로 신궁 김진호를 낳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서형순 선수와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기보배 선수 등 세계적 선수들이 태어나거나 활동중인 양궁 메카로도 세계적 명성을 날리고 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신축한 연면적 3201㎡ 부지 4만5396㎡ 규모의 국제경기장과 선수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든든한 뒷배다.

여기에 ‘도쿄 스타’ 안산은 연이은 승전보로 한국 여자양궁의 신궁 계보

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수 십 년에 걸쳐 양궁 스타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세계대회 유지전에도 더 없는 밑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안산 선수가 신궁 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1984년 서형순에서 2021년 안산까지 역대 6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점을 강조하며 “2025년 세계양궁대회를 반드시 유지하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뛰어난 인적자원과 함께 광주국제양궁장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프랑스에서도 전지훈련을 다녀갈 만큼 뛰어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지난 6월 아시안컵 양궁대회도 성공리에 치러냈다”고 자부했다.

한편 광주가 유치를 추진중인 대회는 세계양궁연맹(WA)이 주관해 2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단일종목 최대 국제스포츠 행사 중 하나로, 리커브와 컴파운드별 개인, 단체, 혼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안산이 25일 오후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단체 결승전에서 활을 쓰고 있다.

성팀 경기를 펼치며 통상 80~100여 개국에서 참가하는 국제대회다. 2019년 네덜란드 대회에는 88개 국, 9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2009년 울산시가 개최한 바 있고, 올해는 미국 양궁

팀, 2023년에는 독일 베를린이 개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양현종, 길어지는 부진

마이너리그서 5½이닝 5실점…평균자책점 5.68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양현종(33)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트리플 A 라인드류 엑스프레스에서 뛰고 있는 양현종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리노 그레이터 네바다 필드에서 열린 2021 마이너리그 리노 에이스(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산하)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 5½이닝 7피안타 1홈런 4볼넷 3탈삼진 5실점 4자책점에 그쳤다.

7개의 피안타 중 홈런이 1개, 2루타가 5개일 정도로 장타를 많이 맞았다.

양현종의 마이너리그 시즌 평균자책점은 5.68로 올랐다.

출발은 좋았다. 1회를 삼자범퇴로 빠르게 끝냈다.

2회 첫 실점이 나왔다. 선두 세스 비어에게 중월 솔로포를 맞아 선제점을 내줬다. 이후 볼넷과 2루타로 무사 2, 3루에 물린 양현종은 마이어 델라크루스에게 내야 안타를 맞아 추가 실점했다.

3회부터 5회까지는 매 이닝 주자를 내보냈지만, 점수를 더 주지

않고 상대 타선을 막았다. 3회 볼넷 1개만 허용한 양현종은 4회 2루타와 볼넷 1개씩을 헌납했다. 5회에도 2루타 1개를 맞았다.

위키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던 양현종은 2-2로 맞선 6회를 넘어 서지 못했다.

선두 크리스티안 톱스에게 중월 2루타를 맞은 양현종은 델라크루스를 내야 뜬공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후속 캐트 더즈넥이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하면서 1사 1, 3루에 물렸다. 결국 닉 히스에게 2타점 2루타를 얻어 맞았다.

역전을 허용한 양현종은 1사 2루에서 교체됐다. 양현종에게 마운드를 이어받은 스콧 앵글러가 등판하자마자 적시 3루타를 맞아 양현종의 실점은 '5'로 불어났다.

한편, 라운드록은 양현종이 무너지며 6회까지 2-7로 끌려갔지만 7회 대거 7득점하며 9-7로 역전했다. 그러나 볼넷이 2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해 결국 10-11로 졌다.

뉴시스

日테니스 오사카 나오미, 3회전 충격 탈락

일본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선사하겠다는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24)의 꿈이 허망하게 깨졌다.

2020 도쿄올림픽 최종 성화 주자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던 오사카가 초반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오사카는 27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테니스 파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3회전에서 마르케타 본드루소바(체코)에게 세트스코어 0-2(1-6 4-6)로 패했다.

아이티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사카는 2018년과 2020년 US오픈, 2019년과 올해 호주오픈 등 메이저대회 단식만 4차례

정상에 오른 세계적인 선수다.

지난 23일 개최식 최종 성화 주자로 나서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오사카는 정작 경기에서 기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세계랭킹 2위 오사카는 랭킹 42위 본드루소바를 맞아 두 세트에서 5점을 얻는데 그쳤다. 경기는 불과 1시간 8분 만에 막을 내렸다.

세계랭킹 1위 애슐리 바티(호주)가 1회전에서 떨어지는데 이어 오사카까지 중도 이탈하면서 이번 대회 여자 테니스는 세계 톱랭커 두 명이 사라진 채 메달 경쟁을 지속하게 됐다.

뉴시스

김제덕, 양궁 첫 3관왕 무산…개인전 32강 탈락

독일 플로리안 운루에 충격의 일격…혼성단체전·남자단체전 2관왕으로 대회 마감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양궁 단체전 4강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고교생 공사 김제덕(17·경북일고)이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에 도전했지만 무산됐다.

김제덕은 27일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벌어진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플로리안 운루(독일)에 세트 점수 3-7(30-28

27-27 27-28 26-27 28-29)로 패하며 탈락했다.

앞서 혼성단체전,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김제덕은 올림픽 첫 양궁 3관왕에 도전했으나 고비를 넘지 못했다.

그동안 양궁 종목에 걸린 금메달은 총 4개였으나 이번 대회부터 혼성단체전이 추가되면서 개인 3관왕이 가능해졌다. 김제덕의 첫 3관왕 달성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 이유다. 김제덕은 여자부 안산(20·광주여대)과 동반 2관왕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역대 한국 올림픽 최연소 남자 금메달리스트.

랭킹라운드를 1위로 통과한 김제덕은 64강을 가볍게 통과하고, 32강에서도 1세트부터 연속으로 ‘텐-텐-텐’ 행진을 펼치며 기세를 올렸다. 30-28로 1세트를 따냈다.

그러나 2세트부터 집중력이 급격히

뉴시스

평평 울어버린 김서영 “마음처럼 되지 않아 혼란스러워”

경영 여자 개인혼영 200m 준결승 12위 머물러 결승 좌절

김서영(27·경북도청)은 도쿄올림픽 경영 여자 개인혼영 200m 준결승을 마친 뒤 눈물을 쏟아내며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믹스트존에 들어서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취재진의 부름에 멈춰섰지만, 김서영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주저앉아서 흐느끼기도 했다.

김서영은 27일 일본 도쿄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경영 여자 개인혼영 200m 준결승에서 2분11초38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2조 7위로 레이스를 끝낸 김서영은 전체 16명 중 12위에 머물러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결승권 티켓 확보에 실패했다.

김서영의 개인혼영 200m 최고 기록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당시 수립한 한국기록인 2분08초34다.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기록을 넘어선 메달까지 노려볼 수 있었지만, 결승 무대도 밟지 못했다.

김서영은 2012년 런던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 올림픽에 나섰다. 앞선 두 차례 올림픽에서도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다.

자유형, 배영 등 다른 종목 출전 자격을 갖추고도 개인혼영 200m에 집중했기에 김서영으로서는 더욱 아쉬운 결과였다.

1분 여 동안 눈물을 쏟아내던 김서영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오늘 경기를 뛰기 전까지 솔직히 자신있었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며 “100m까지는 처음부터 자신감 있게 가려고 했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후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혼영 200m는 한 선수가 점영, 배영, 평영, 자유형 순서로 50m씩을 헤엄치는 종목이다.

이날 준결승 2조에서 레이스를 펼친 김서영은 100m 지점까지 1위로 통과했지만, 세 번째 평영 구간에서 5위로 밀려난 뒤 최종 조 7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김서영은 “어제 예선과 오늘 경기를 뛰면서 확실히 그동안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고 부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심 3m의 수영장에서 헤엄친 것이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로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영은 “아쉽게 마무리 돼 많이 속상하다. 마음처럼 경기가 되



김서영이 27일 오전 도쿄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수영 여자 200m 개인혼영 준결승 2조에 출전해 결승 진출에 실패한 뒤 이듬하며 울먹이고 있다.

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 여파로 선수들이 여러 제약 속에 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김서영은 이를 핑계대지 않았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같은 입장이다. 그런 부분에는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혼영 200m 준결승에서 탈락하면서 김서영은 이번 대회 개인 종목을 모두 마무리했다. 아직 경기는 남아있다. 그는 28일 오후 열리는 여자 계영 800m 영자로 나선다.

뉴시스

LG, 투수 정찬헌-키움, 내야수 서건창 1대1 트레이드 성사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LG는 27일 “투수 정찬헌(31)을 키움에 내주고, 내야수 서건창(31)을 받아오는 1대1 트레이드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올 시즌 대권을 노리는 LG는 서건창을 데려오며 약점으로 꼽히던 2루수를 보강했다.

서건창은 통산 1067경기 타율 0.306, 1236안타 35홈런 437타점 727득점 212도루의 성적을 냈다.

2012년 신인왕에 올랐고, 2014년에는 KBO리그 단일 시즌 최다 안타(201안타) 신기록을 쓰며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도 3차례(2012년, 2014년, 2016년) 선정됐다.

2008년 LG 육성선수로 프로에 뛰어 들었던 서건창은 2009년 말 방출된 뒤 12년 만에 다시 줄무늬 유니폼을 입게 됐다. 올 시즌 뒤에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을 예정이다.

차명석 LG 단장은 “서건창은 리그 정상급의 2루수로서 공수주에서 팀의 전력 상승을 통해 이번 시즌 원나우를 추구하는 팀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움은 정찬헌을 영입하면서 구명난 선명진을 메울 수 있게 됐다. 최근 선발 투수 한현희와 안우진이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32경기 출전 징계를 받아 선발진이 붕괴된 상태였다.